여름밤의 추억…"오토 캠핑 떠나요"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내 오토 캠핑장에 설치된 최신형 4인승 캠핑카. 야외에 원형 테이블도 비치돼 이야기꽃을 피우며 무더위를 잊을 수 있다.

'한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 풀벌레 소리, 팔 베개 하고 북두칠성 찾아보기…'

지난 18일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내 오토 캠핑장을 찾은 프랑스인 마리옹 트레스카(marion tresca·여·23·프랑스어 강사)씨는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한아름 챙겼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해남, 송호해수욕장에 오토 캠핑장 조성

'숙식 가능' 4인용 캠핑카 10대 연일 매진

친구 3명과 함께 송호리 오토 캠핑장에서 1박 2일을 보낸 마리옹씨는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나니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면서 "프랑스에 있는 어떤 휴양지보다도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최근 문을 연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내 오토 캠핑장이 연일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토캠핑은 전 세계인이 즐기고 있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레저문화. 숙박과 식사, 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 대자연 속을 주유하는 '웰빙 여행'이나 한국에서는 캠핑카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해남군은 최근 송호리 해수욕장 뒤편에 20억원을 투입,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고, 4인용 캠핑카(캐러밴·1대당 3천만원) 10대를 설치했다.

캠핑카 내에는 4명이 숙박할 수 있는 침대(2층 침대 1개, 2인 침대 1개)와 화장실, 샤워시설, 조리시설, 위성TV, 냉·난방시설, 쇼파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

특히 조리 시설은 집안의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완벽하다. 양념류와 간단한 먹을거리만 준비하면 대부분의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또 캠핑카 1대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야외 원형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개인 공간을 최대한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야외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모기약과 야외용 조명기구 정도만 구비하면 되고, 간단한 개인용 조리 기구를 가져오면 야외에서 음식 조리도 가능하다.

이곳 오토 캠핑장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송호리 해수욕장이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송호리 해수욕장은 수백 년 된 해송(海松)이 풍치림(風致林)을 이루며 제방을 따라 1km가량 이어진 곳으로, 수심이 낮고 백사장이 깨끗해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김성홍 해남군 관광개발 계장은 "최신의 캐러밴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예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용료는 평일 8만원, 주말 10만원이고,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문의 (061-530-5258).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학여행 계약 일방 파기 말썽

선사측 "법적 조치"…학교측 "1개월전 해약 가능"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완도 여객선사와 맺은 계약을 5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해 선사측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A 고등학교는 올해 6월17일로 예정된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작년 12월 초 완도~제주간을 정기 운항하는 한일고속 카훼리호 측과 학생과 교사 등 415명에 대한 사전예약을 했다.

그러나 A고는 지난 5월 22일 학교 형편을 이유로 제주도 수학여행 협약을 취소하고 목포항으로 출발지를 변경했다.

A고는 조달청 수학여행 입찰공고 당시 완도~제주 구간을 경유하는 코스로 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상급기관의 감독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한일고속 측은 "학생들은 30% 할인하고 교사들은 무임승선을 약속하는 등 최적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계약 파기로 640여만원의 영업상 손실을 입은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고 관계자는 "여행 약관 등에 1개월 전까지 해약을 통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도~제주간 항로는 3시간이 소요돼 고흥 녹동~제주 4시간, 목포~제주 4시간30분, 부산~제주 11시간, 인천~제주 12시간 등에 비해 최단 시간에 제주를 방문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성군 공무원 '기업사랑 투어' 장성군청 공무원 160여명은 지난 17·18일 이틀간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견학했다. 장성군은 전 공직자들이 지역내 기업을 돌아보는 '기업사랑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조망권 박탈·농로 훼손…피해 보상을"

장흥 장동면 북교 주민들, 무안~광양 고속道 건설공사 '항의'

오는 2011년 준공 예정인 무안~광양간 고속도로의 장흥~보성 구간인 장동 북교 일대 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로 조망권 박탈과 농로 훼손 등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 북교 일대 주민들은 "장동면 북교 일대에 지면으로 부터 17m높이의 고속도로 330여m가 건설돼 300여명이 거주하는 5개 마을의 조망권이 박탈되고 농경지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마을 진입로 일부가 공사차량으로 인해 파손되고 소음과 진동은 물론 비산먼지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 양 옆산에 터널이 관통되고 도로가 마을을 가로막으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급증해 치료를 요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시공회사인 S토건 측에 안전대책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도로공사와 시공회사를 방문, 집단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토건 측은 "터널과 교량 공사로 마을 조망권이 침해되고 일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정한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천년 비색' 강진 고려청자

제조품 최초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천년비색을 간직하고 있는 '강진 고려청자'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는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등 농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자 등 제조품에서의 독점적 권리 인정은 강진 고려청자가 처음이다.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강진 고려청자의 체계적 품질관리와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지역 특산품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자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또 인지도가 높아지고 산업기반도 충실해져 도자업체와 지역경제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삼계탕 안심하고 드세요"

광주 하남농협, 노인 600명 초청 시식회

광주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면) 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9·20일 이틀간 지역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시식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시식회는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성 홍보 및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하남농협은 지난 2006년 3월 건강복지센터를 개관, 재가 노인복지사업인 주간 보호센터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소형 버스를 지원받아 관내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성 외국어타운 '주말 영어광장' 1기 수료식

장성외국어타운 제 1기 주말 영어광장 수료식이 지난 19일 배병채 장성교육장 등 교육 관계자와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성교육청이 지역민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개설한 주말 영어광장의 1기 수료생은 20명으로, 이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8회에 걸쳐 24시간의 영어 집중교육을 받았다.

장성교육청은 수료자들에게 2기 주말 영어광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겨울 영어학교에 학습보조 지원자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장성교육청은 또 제 2기 주말 영어광장도 지역민과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깊은 숲속 맑은 공기 마셔 보세요"

내달 9~10일 장성 축령산서 '산소 축제'

백일장·피톤치드 삼림욕 등 행사 다양

스트레스와 각종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피톤치드(Phytoncide)'가 풍부한 장성 축령산에서 '제 1회 산소축제'가 열린다.

장성군 서삼면은 "다음달 9·10일 이틀간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조림지 일대에서 'O_2 장성 축령골 산소축제 2008'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260ha에 이르는 축령산 조림지는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이 풍부해 각종 공해와 피로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조림왕' 춘원 임종국(1915~1987) 선생이 사재를 털어 가꾼 곳으로 2002년부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편백나무 숲 체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령산 건강산행대회, 백일장대회, 피톤치드 삼림욕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밖에 산림청 역대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와 생태연극, 숲속 특설무대 등 공연도 선보인다.

이기우 산소축제추진위원장은 "산소축제는 축령산의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소규모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